

『2011년 13호 ‘주간 심층이슈’』



『 프랑스 영화 배급 시장 동향 』

○ 작성 취지

- 프랑스 영화 배급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 최근 프랑스 영화 배급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현지 영화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작성 순서

1. 「배급 영화 편수로 본 배급사 현황」
2. 「영화 배급사 수익으로 본 배급사 현황」
3. 「프랑스 영화 배급 시장 점유현황」

1. 『 배급 영화 편수로 본 배급사 현황 』

- 2010년 5월 18일자로 발표된 프랑스 국립 영화 및 동영상 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프랑스 영화 배급사 수는 총 273개로 입력되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배급영화 편수를 기준으로 본 배급사 수의 추이를 보면, 연간 총 배급사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배급된 영화 편수 범위를 <표 1> 에서와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면, 범주 II, III, IV 의 추이 변

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배급사 수 추이 변동에 크게 작용하는 분야는 연간 배급 영화 편수가 한편에서 다섯 편까지의 소량 작품 배급사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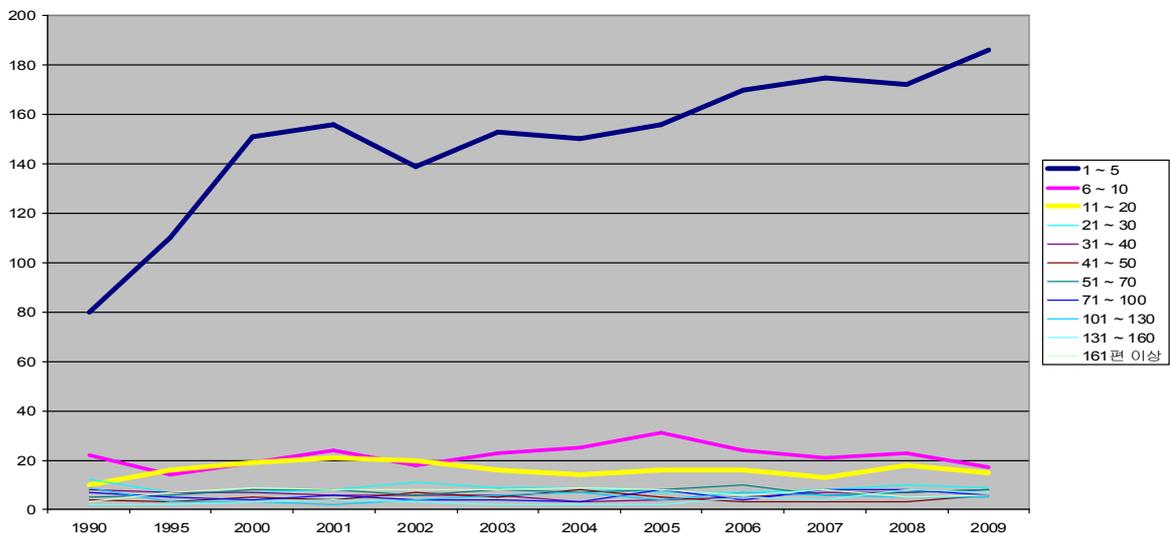
<표 1> 프랑스 영화배급사 수 현황표 (배급영화 편수 기준)

영화 편수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 1~5	80	110	151	156	139	153	150	156	170	175	172	186
6 ~ 10	22	14	19	24	18	23	25	31	24	21	23	17
11 ~ 20	10	16	19	21	20	16	14	16	16	13	18	15
21 ~ 30	12	7	7	8	11	9	9	7	7	8	10	9
II. 6~30	44	37	45	53	49	48	48	54	47	42	51	41
31 ~ 40	8	7	7	6	6	6	3	4	5	7	7	8
41 ~ 50	4	3	5	4	7	5	8	5	3	3	3	6
51 ~ 70	5	6	8	8	6	8	7	8	10	6	7	8
71 ~ 100	7	5	4	6	4	4	3	8	4	8	8	6
III. 31~100	24	21	24	24	23	23	21	25	22	24	25	28
101 ~ 130	9	3	3	2	4	6	7	4	7	6	5	5
131 ~ 160	2	2	3	4	3	2	2	2	5	4	8	7
161편 이상	3	7	9	8	8	8	9	8	6	8	5	6
IV. 100편 이상	14	12	15	14	15	16	18	14	18	18	18	18
I+II+III+IV	162	180	235	247	226	240	237	249	257	259	266	273

(출처: CNC (2010년 5월 18일 현재 통계))

- 상동의 프랑스 영화배급사 수 현황표를 그래프로 옮겨 보면 (<그래프 1>), 가장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범주 I, 즉 5편 이하 소수 작품 배급 활동 중심의 배급사 수의 추이가 다른 범주의 추이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프 1> 프랑스 영화배급사 수현황표 (배급영화 편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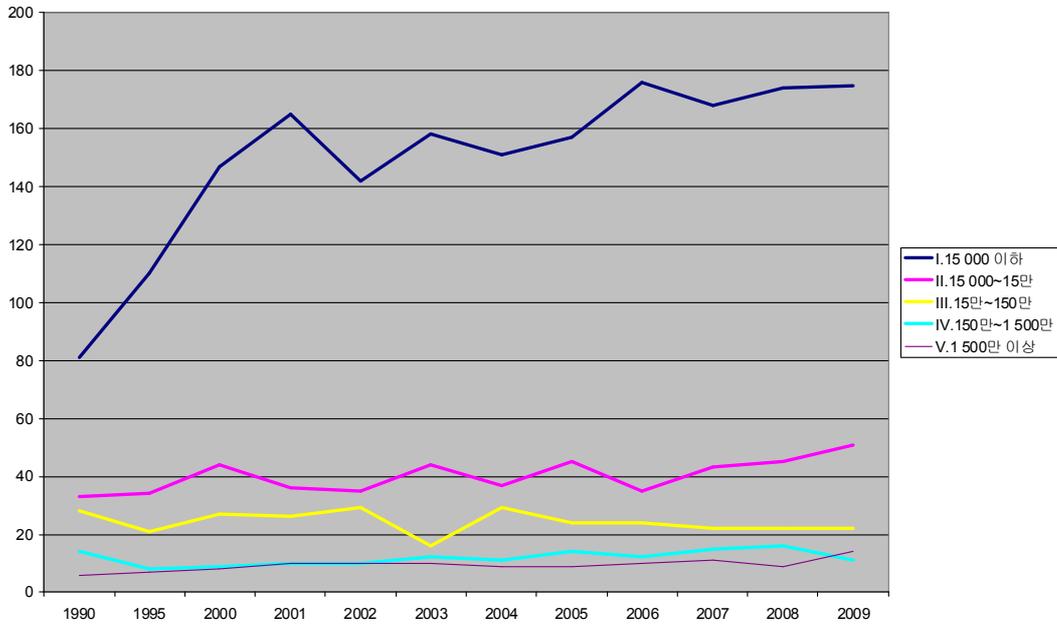


- 요컨대, 프랑스 영화 배급 시장 구조는 소규모 배급사 집단이 전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들을 위한 문화 생활수준 보편화 정책의 일환에 부합하는 영화 문화 배급망의 간선 도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 영화 배급사 수익으로 본 배급사 현황 』

- 영화 배급사 수익(Encaissement distributeur)은 극장주가 CNC 기관에 신고한 수입에서 산정되고, 동일 기관 관련 부서 Service du Contrôle de Gestion et des instruments de financement 자금조달 및 운영 관리소로부터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극장 관람료에서 배급사에게 돌아오는 금액이다. CNC가 발표한 영화 한 편당 입장료에 의거한 배급사 평균 수익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영화 한 편당 평균 관람료는 5.95 유로로, 이 중 배급사에게 돌아가는 평균 수익분은 2.42 유로로 산정된다.
- 물론, 이 수치는 극장주가 CNC측에 매주 프랑스 영화관의 주 개념은 수요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난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당 총 매표 수입을 해당 유료 입장 수로 나눈 평균 입장료 Recette moyenne par entrée (RME)에 준거한 것으로, 영화 별 입장료는 그 영화의 제작년도, 개봉작인지의 여부, 영화 국적 및 장르, 배급 필름 수, 배급사와 극장주와의 협상 조건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 배급사 입장에서는 제작년도가 최근일수록, 특히 개봉작인 경우, 배급 프린트 수량이 많을수록 수익분이 올라간다. 장르로는 판타지, 공포, 공상 과학, 탐험, 범죄, 코미디 영화 장르의 평균 수익분이 다른 장르보다 높게 나타난다. 영화 국적별 평균수익 가치는 미국영화(2.51유로)가 선두를 달리고, 프랑스 영화 (2.47유로), 유럽 영화 (2.44유로) 그 외 (2.29 유로) 순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영화 배급사 수입 기준으로 본 배급사 수 현황을 보면, 앞서 본 배급 영화 편수를 기준으로 한 배급사 수 현황과 유사한 추이 성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래프 2> 프랑스 영화배급사 수현황표 (수입기준)



<표 2> 프랑스 영화배급사 수현황표 (수입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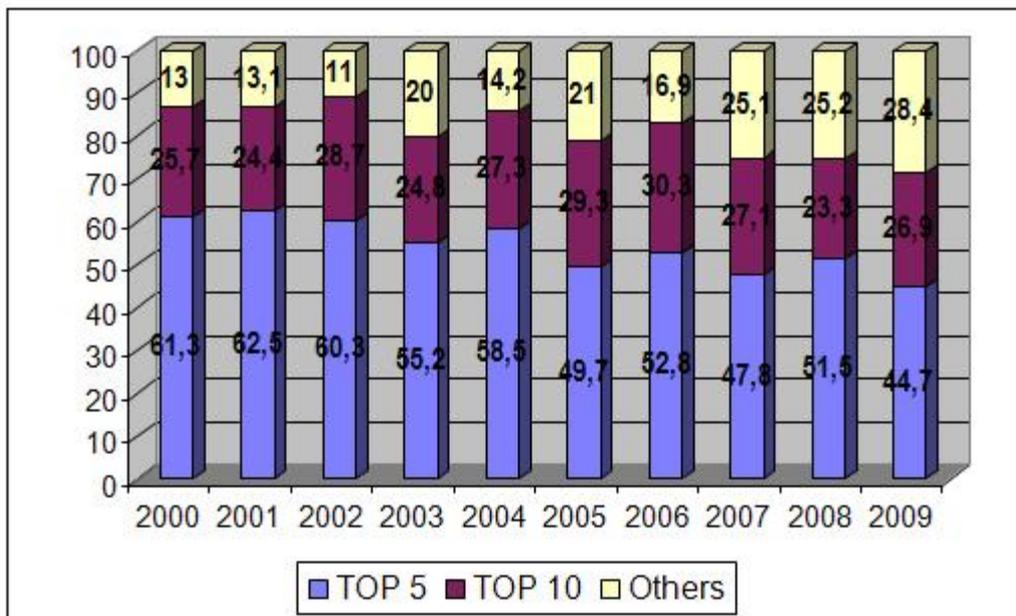
연간수입(유로)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15 000 이하	81	110	147	165	142	158	151	157	176	168	174	175
II.15 000~15만	33	34	44	36	35	44	37	45	35	43	45	51
III.15만~150만	28	21	27	26	29	16	29	24	24	22	22	22
IV.150만~1 500만	14	8	9	10	10	12	11	14	12	15	16	11
V.1 500만 이상	6	7	8	10	10	10	9	9	10	11	9	14
I+II+III+IV+V	162	180	235	247	226	240	237	249	257	259	266	273

○ 연간 수입 범주를 <표 2> 에서와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15유로 이하의 수익을 기록한 소규모 배급사 수가 1990년 81개에서 2009년 175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범주 III (15만유로에서 150만 유로 수익)과 IV (150만에서 1만 유로 수익)에 해당하는 배급사 수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범주 II(15,000유로에서 15만 유로수익) 배급사 수는 1990년 33개사에서 2009년 51개사로, 상위권 범주 1만 유로 이상의 수입 기록을 낸 배급사 수는 1990년 6개사에서 2009년 14개사로 늘어났다.

3. 『 프랑스 영화 배급 시장 점유현황 』

배급사 수입 기준으로 본 프랑스 영화 배급 시장 점유 현황을 보면, 10대 메이저 배급사의 집중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 초반기의 배급 시장은 소수 독점구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TOP 5 배급사의 점유율은 60 % 선을 웃돌고 있고 TOP 10 배급사의 점유율은 2002년 최고 89 % 까지 이른다 (<그래프 3 >).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TOP 5 메이저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TOP 10 배급사 포함 비중도 2007년 74.9 %, 2008년 74.8 %, 2009년 71.6 % 선으로 하향하고 있다.

<그래프 3 > 프랑스 영화배급사 시장 점유율 (배급영화 수입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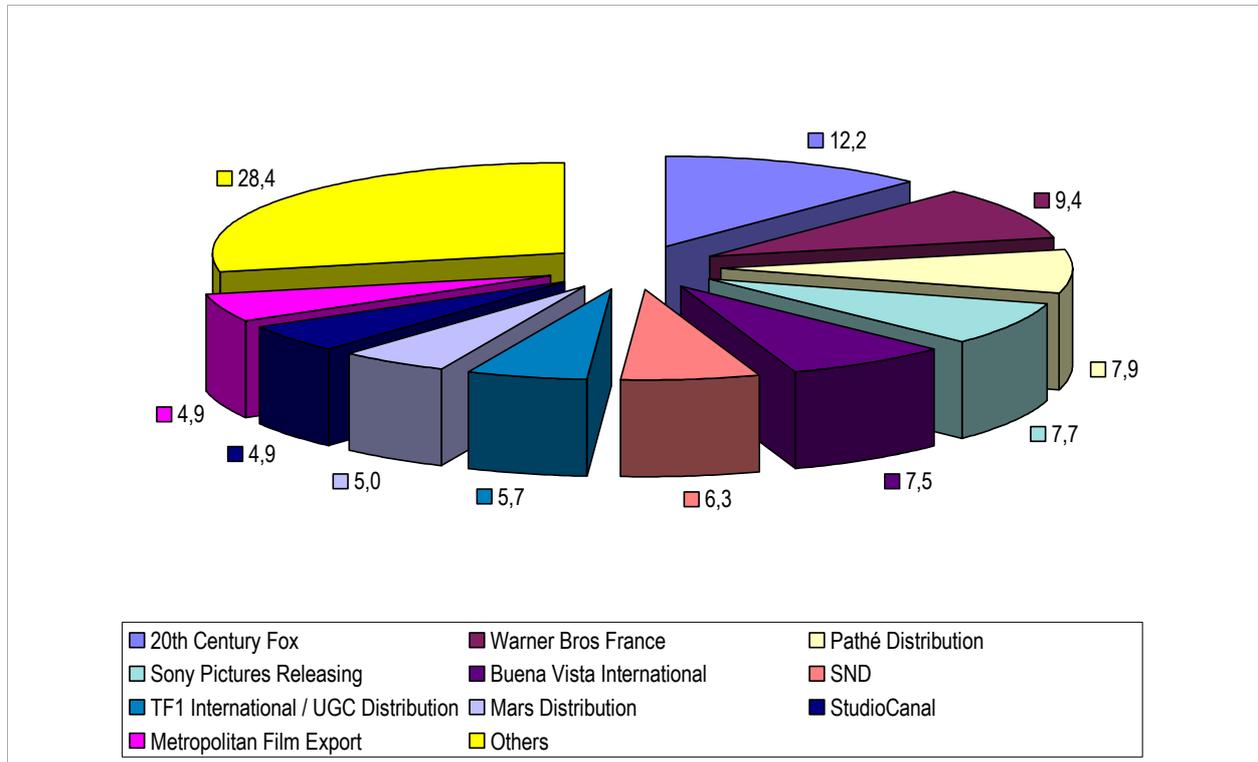


(출처: CNC (2010년 5월 18일 현재 통계))

2009년 프랑스 TOP 10 영화배급사의 개인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그래프 4 >), 1위를 차지한 20th Century Fox사가 12.2%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2위의 Warner Bros France사보다 2.8% 앞서있다. 3위부터 5위까지의 그룹은 파테 디스트리뷰션, 소니 픽처스 릴리징, 부에나 비스타 인터네셔널이 각각 7% 를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SND 와 TF1 Intl./UGC Distribution이 6% 상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8위부터 10위까지의 그룹은 막스 디스트리뷰션, 스튜디오 까날, 메트로폴리텐 필름 익스포트가 각각 5% 선을 맴돌고 있다.

<그래프 4 > 2009년 프랑스 국내TOP 10 배급사 시장점유율 (수입 기준)

단위: 백분율 (%)



2009년 프랑스 TOP 10 영화배급사 별 시장 점유율과 총 배급 영화 수 및 개봉 작품 수를 비교해 보면(<표3 >), 배급사의 영화선정 성향과 투자 대 이윤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0th Century Fox사의 경우, 총 배급 영화 수는 99편, 이 중 개봉 영화 편수는 19편으로, 다른 메이저 배급사에 비해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 기준으로 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는 2009년 개봉한 «아바타» (3D), «엑스맨 탄생 울버린», «아이스 에이지3 공룡시대» (3D)가 흥행 실적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 2009년 프랑스 국내 TOP 10 영화배급사 (배급사 수입 기준)

순위	배급사명	시장점유율 (%)	총 배급영화수	개봉작품 부분
1	20th Century Fox	12,2	99	19
2	Warner Bros France	9,4	158	12
3	Pathé Distribution	7,9	167	17
4	Sony Pictures Releasing	7,7	174	18
5	Buena Vista International	7,5	138	13
6	SND	6,3	52	16
7	TF1 Intl./UGC Distribution	5,7	147	22
8	Mars Distribution	5,0	41	20
9	StudioCanal	4,9	117	16
10	Metropolitan Film Export	4,9	137	30
11	Others	28,4		

(출처: CNC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 (2010년 5월 18일 현재 통계))

Warner Bros France사는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흥행실적을 냈고, 파테 배급사는 «LOL Laughing Out Loud»와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시장 점유율 실적을 올렸다. 부에나 비스타 인터네셔널은 2009년 3D 영화 붐으로 개봉된 총 16편 중 여섯 편을 배급했다.

개봉 영화 편수 비중으로 보면, 메트로폴리텐 필름 익스포트사가 30편을 기록하였고, TF1과 UGC연맹 배급사가 22편을 개봉했다.

2009년 7월 TF1과 UGC이 배급 분야 동맹을 맺으면서, 2008년 (TF1 2.9 %와 UGC Distribution 1.2 %) 대비 시장 점유율을 상향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급사 연맹 전략 수용으로 배급된 영화의 대표적인 예로 Ad Vitam/MK2 의 «24 City»와 Le Pacte/Wild Side Films의 «Bronson»을 들 수 있다.